

## 『子不語』의 創作背景 研究

申秉澈\*

## &lt;목 차&gt;

1. 序論
2. 18世紀 權力和 文化
3. 18世紀 文學와 思想 그리고 知識人
4. 小說의 興盛과 『子不語』
5. 結語

## 1. 序論

中國에서는 하나의 작품을 평가하는데 있어 作家와 時代背景은 매우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sup>1)</sup> 이러한 비평방법이 텍스트 비평에 의해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중국의 고전문학에서 이러한 작가와 시대적 배경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중국과 이에 영향을 받은 한자문화권의 독특한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배경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구 문화의 개인주의적인 분위기에 반해 儒家를 중심으로 현실사회에 대한 立身揚名을 인생의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배경은 개인주의보다는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강하게 만들고 있다. 결국 작품의 텍스트에서도 이러한 문화적 배경은 그대로 묻어날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作家의 生涯와 그 시대적 배경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古代 中國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학과 시대 환경간

의 관계를 중시한 비평가가 매우 많았다. 그들이 작품과 시대와 관계에 주목한 이유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통사회의 특징을 몸소 느끼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毛詩·序』나 『文心雕龍』과 같은 중국의 유명한 역대 비평서는 거의 모두 작품과 시대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毛詩·序』는 예술경향의 특징을 治世, 亂世, 亡國과 같은 정치적 상황과 결부지어 설명하고 있고, 劉勰의 『文心雕龍』에서도 文運의 성쇠를 王政의 득실로 따지고 있다. 이처럼 예술 창작과 시대배경은 매우 밀접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좀 더 세심하게 이러한 배경에 대해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毛詩·序』나 『文心雕龍』으로 대표되는 고대의 이론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러한 고대의 논리를 단순히 시대배경을 논했다고 하기에는 정치적 권력 변화에 대한 기술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구의 문화비평에서도 시대배경을 중시하는 비평방식이 폭넓게 자리 잡고 있지만 그들의 중심은 정치보다는 時代文化에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중국은 시대적인 문화배경보다도 정치적 상황변화에 더 중심을 주고 있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宋源燦의 北京大 박사논문인 『‘文’與‘小說’』에 잘 나타나 있다.<sup>2)</sup> 그의 논문은 小說의 기원론과 발전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논점의 핵심은 오히려 小說보다는 사회적 문화배경에 있다. 그는 특히 동서양의 서로 다른 문화형질, 그 원형적인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서양의 학문이 神學을 중심으로 하는데 반해 중국은 經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양이 神을 중심으로 한 사회였다면 동양은 皇帝라는 절대 권력에 중심을 두었던 사회라고 보았다. 이러한 양자 사이의 차이로 인해 서양은 神과 관련된 성격의 神話나 서사시와 로망스 같은 장르의 발전에 좀 더 중심을 두었고, 中國은 皇帝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력과 관계된 부분, 즉 歷史書와 같은 實用書에 더 관심을 두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史貴於文’라는 전통 관념을 도입하여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서양과 중국의 차이를 “(서양은) 신화 속에 역사가 있다면, (중국)은 역사 속에 신화가 있다.(神話裏面的歷史, 歷史裏面的神話.)”<sup>3)</sup>고 한마디로

\* 漢陽大 中文科 講師

1) 그 유래는 孟子의 ‘知人論世’에서 볼 수 있다.

2) 宋源燦, 『‘文’與‘小說’』, 박사학위논문, 北京大, 2002년.

이를 정리하면서 역사서가 일찍이 발전한 중국에서 서사시의 존재가 미미한 이유는 당연한 것이며, 역사서의 발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또 중국에서 魏晉南北朝를 문학의 자각시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전에도 운문은 이미 자각을 했고, 散文은 그 이후에도 문학보다는 문장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그 중에는 정치적인 성격의 문장이 높게 평가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입신양명이 고대 지식인의 꿈이었고, 또한 政治권력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측면으로 볼 때 문화배경보다도 정치배경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당시 배경을 권력과 문화, 문학, 사상으로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 2. 18世紀 權力과 文化

### 1) 歷史背景

袁枚는 康熙·雍正·乾隆이라는 淸나라의 가장 강성했고 번성했던 시기를 살았던 인물로 이러한 시대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淸朝는 康熙 年間に 이르러 吳三桂가 주도한 三藩의 난을 평정하고, 대만을 점령하면서 淸나라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세력을 모두 평정하고 중국을 진정으로 통일하게 되는데 이때가 1683년이었다. 袁枚가 태어난 해가 1716년이었으니, 그 시기에는 이미 淸나라가 확실히 기틀을 잡은 후였다. 물론 산발적인 ‘反淸復明’의 움직임과 정서가 존재했으나 그것이 더 이상 주요한 이슈가 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淸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토를 확장하여 국가를 더욱 강성하게 만들었다. 乾隆 年間에는 북으로는 카호타까지 남으로는 南沙群島까지 서로는 파미르고원과 발하시湖까지 동으로는 오호츠크海와 사할린까지 확장하게 된다. 이러한 영토 확장은 오늘날 중국의 영토로 이어진다.

3) 宋源燦, 앞의 박사학위논문, 105쪽.

淸朝가 山海關을 통과하면서 入關한 이후 268년 동안 중국대륙을 다스렸는데, 그 중에 袁枚가 살았던 康熙·雍正·乾隆 3대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이 134년을 가장 흥성하였다고 하여 ‘淸朝의 盛世’라거나 ‘康雍乾 時代’라고 부르기도 한다.

淸朝는 明朝와는 달리 소수민족인 滿洲族이 통치하던 시대로 다수의 타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했다. 또한 滿洲族은 원래 중앙집권이 아닌 부족 연합체제였는데 이를 皇帝 중심의 체제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초기의 모든 정치적 방향성은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치를 안정화시키는데 있었다. 康熙帝는 入關 초기 淸나라의 정책결정기구였던 謫政王大臣會議의 권한을 억제하고 친왕과 대신의 권한을 낮춤으로써 친정체제를 공고히 하였고, ‘內務府’를 설치하여 황제를 시중드는 측근 환관들을 관할하게 하고 대신의 상소를 황제가 친히 열람토록 함으로써 이전의 왕조에서 문제가 되었던 宦官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최대한으로 억제하여 宦官의 폐단을 없애려고 하였다. 雍正帝는 ‘軍機處’를 별도로 설치하여 군기대신들을 자신이 직접 임명하고 軍機大臣이 황제의 면전에서 諭志를 받아 지방의 總督, 巡撫 등에게 그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모든 결정권은 명실상부하게 황제로부터 나오게 되었으며, 淸朝는 과거의 어느 왕조시대보다도 강한 중앙집권을 할 수 있었다.

康熙·雍正·乾隆 年間の 번성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었던 타민족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실시되었다. 淸朝는 기존의 中國歷史를 살펴 漢人 知識人에 대한 지배방식으로 회유와 탄압을 동시에 사용하는 兩面政策을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활용하였다. 관리를 등용할 때 실질적인 권한은 滿洲族에게 주어졌지만 과거를 실시하여 다른 민족들도 관리로 등용하였고, 학술을 장려하고 지식인을 우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에는 지식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어서 사상적으로는 과거에 八股文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인을 얽어매었고, 또한 중앙권력에서는 滿洲語를 기본으로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康熙帝는 淸朝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식인을 회유하기 위해 朱子學을 내세워 官學으로 삼고 크게 진작시켰다. 또한 이를 博學鴻詞科라는 특채시험으로 연결시켜 지식

인을 회유했다. 또한 이러한 지식인에게 학문을 장려한다는 명분으로 한족 출신의 지식인이 참여하는 각종 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의 성격은 관료이기도 했고 준 관료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참여로 지식인은 자신이 원하던 학술활동을 마음껏 하는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결국 중앙권력에 복종하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江蘇 출신의 徐乾學 형제로 하여금 『明史』, 『大清會典』, 『大清一統志』, 『通志堂經解』, 『康熙字典』 등을 편찬하게 한 것이었다. 또한 『古今圖書集成』의 편찬을 시작하여 雍正 年間に 완성하였다. 학술적으로 보면 국내가 안정되었던 乾隆 年間の 규모가 가장 큰데, 중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가장 방대한 규모의 叢書인 『四庫全書』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淸朝는 이러한 대규모 국책 편찬 사업을 통해 당시의 지식인의 反淸 정서를 누그러뜨리고자 하였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淸朝는 이러한 회유를 거부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탄압을 가하였다. 특히, 지식인에게 가혹했던 것은 ‘文字獄’이라고 하는 사상검증작업이었다. ‘文字獄’이란 그 이름과 마찬가지로 글을 검증하여 죄를 묻는 것으로 이를 통해 업적을 쌓으려는 이들로 인해 더욱 강력하고 잔인하게 시행되었다. 文字獄은 康熙 年間부터 乾隆 年間까지 크게 일어났는데, 이를 통해 중앙권력을 확실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文字獄 중에 유명한 것으로는 康熙 年間 莊廷鑑의 『明史』의 獄과 戴名世의 『南山集』의 獄, 雍正 年間 查嗣庭과 呂留良의 獄, 乾隆 年間の 胡中藻의 獄 등이 있다. ‘文字獄’은 한마디로 사상검증으로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전제주의 정책을 추진하려던 측면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검증작업을 통해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反淸의 언로를 사전에 탄압하여 봉건통치를 공고히 하려고 한 것이다. 文字獄의 실질적인 방법은 어찌 보면 대단히 유치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경우가 많아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였다. 이로 인해 淸朝의 지식인은 자체적으로 사전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고, 王朝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학술을 해야 했고, 그 의지에 따라 논의해야 했다.

## 2) 社會傾向

이와 같은 정치적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袁枚와 같은 당시 지식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역사가 된 이러한 淸朝의 통치형태와 맞물려 형성된 淸朝의 사회구조도 당시 지식인의 역할과 존재형태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다. 당시의 지식인을 ‘文人’ 혹은 ‘紳士’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명칭에 대해 조금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양의 관점을 받아들인 紳士라는 용어는 아무래도 중국의 현실에서 조금 어긋난다고 하겠다.<sup>4)</sup> 현재 중국 대륙에서는 이러한 용어보다는 ‘士’나 ‘文人’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科擧 등을 통해 관직에 있거나 경험한 이들이나 아직 관직을 경험하지 못하고 준비하면서 학술적인 능력을 쌓은 이들을 모두 포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기원은 春秋戰國時代부터 시작하며 歷代 王朝에 모두 발견되는 중국문화만의 독특한 계층이기도 하다. 그 성격이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하나로 묶어 설명하기 매우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宋代의 士大夫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라 하겠다. 결국 이들은 문자를 터득하여 일정한 지식을 쌓은 모든 지식인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들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비록 국가에서 공식적인 하사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국가권력층과 백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중앙권력과 멀리 떨어져 있는 향촌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가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였다.<sup>5)</sup> 淸朝도 이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이들을 힘을 인지하고 이를 제대로 이용하기 위한 온갖 방법을 사용하였다.

淸朝가 가장 먼저 손을 쓴 부분은 그들의 위치를 공고히 해주는 것이었으며, 또한 科擧를 실시하여 일정한 탈출구도 만들어 주었다. 이로 인해 文人의 입장에서

4)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에서 편찬한 『講座中國史 4』(지식산업사, 1989, 서울)의 206쪽 등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5) 이에 대해서는 于迎春의 『中國早期歷史中文學, 文人的形態和觀念』(『中國學術』 第五輯, 北京, 商務印書館, 2001年)를 참조할 만하다.

보면 淸朝가 권력을 잡은 이후 사회가 점차 안정되어 가면서 明末의 사회분위기가 그대로 재현되었다. 이는 淸朝가 급격한 변화로 인한 반발을 막기 위해 과거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흡수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淸朝 문인들은 明朝보다도 더욱 공고한 사회지배력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이 가장 심하고 두드러진 지역은 당시 중국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었던 江南지방이었다. 淸朝는 향촌에서 문인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어느 정도 눈감아주면서까지 그들을 회유하였던 것이다.

淸朝 초기에는 통치기반 확립과 재정확보를 위해 江南을 탄압해야 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다. 특히 중앙권력통치가 안정된 이후 중앙과 멀리 떨어진 지역인 江南을 통치하기 위해 이러한 文人세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매우 독특한 존재로 개개인으로서 보면 매우 나약하고 별것 아닌 존재였지만 계층을 놓고 보면 전면적인 통제도 불가능한 존재이면서도 국가 통치에 매우 필요한 존재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국가의 관직을 받을 것도 아니어서 평민이나 마찬가지로 지이기도 했다. 결국 淸朝는 文人이라는 지식인 계층을 무시할 수도 부정할 수도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을 우호세력으로 끌어드리기 위해 淸朝는 노력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이 알게 모르게 지니고 있는 華夷思想을 불식시켜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인의 권위와 약간의 권력은 皇帝에게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청조에 소극적으로 반하거나 적극 협조하게 되었다. 결국 중앙권력을 장악한 淸朝와 일정한 지방권력을 장악하는 것이 허용된 당대 지식인이었던 문인은 미묘한 협조관계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淸朝의 文人(지식인) 통제정책은 회유와 탄압이라는 양면정책으로 그 효과는 대단하였다. 결국 淸朝는 기본적으로 文人을 제어할 수 있었으며 양자 사이에는 일정한 협조체제가 만들어지면서 康熙·雍正·乾隆 3대에 이르는 장기간의 사회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淸朝의 지식인은 意識적으로나 思想적으로 완전히 淸朝의 권력을 인정하고 또 순응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사회를 감싸고 있는 모든 전반적인 문화와 사상 등도 淸朝를 옹호하

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保守적이면서 復古적인 경향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 3) 出版業의 復興

袁枚가 활동했던 시기인 淸代 초기와 중기의 경제는 정치적인 통치기반이 안정되고 강화되면서 점차적으로 안정과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의 번성은 다양한 문화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본적인 배경을 이루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淸朝는 당시 경제의 기초였던 農業을 여전히 중시하면서 기술개선에 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이전의 시대와 비교하여 현저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黃河와 淮水에 제방을 쌓고 하천을 복구하는 등 대규모 水利공사를 실시하여 경지면적을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사로 인해 농민들은 흉수나 관개마저 안정되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농업 생산량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사회구조에서 기본이 되었던 식량생산이 늘면서 여러 가지 과급효과가 나타났다. 맨 먼저 풍부해진 식량 공급으로 인해 다양한 품종의 작물 재배가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수공업도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康熙帝는 수공업 장인들을 기록한 명부인 匠籍과 匠戶의 代役銀 납부제를 폐지함으로써 수공업자들에 대한 신분예속관계를 한층 완화하였다. 또한 乾隆帝는 상업과 수공업 종사자들의 ‘當官(관청에 의무적으로 부역하는 것)과 應官(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의무적으로 공급하는 것)제도를 폐지하여 수공업자의 상품 생산 활동을 크게 촉진시키면서 한층 발전시켰다. 乾隆의 嘉慶年間에 이르러 수공업은 상당히 발달하여 江南의 絲織業, 臺灣와 廣東의 製糖業, 江南 景德鎮의 窯業, 雲南의 製鍊業 등에서는 모두 초기 자본주의적인 작업장이나 공장 형태를 갖추고 있었으니 가장 활발한 것은 絲織業이었다. 이처럼 農業과 手工業이 발달함에 따라 商業도 발달하게 되었다. 당시 판매량이 많았던 주요 상품으로는 棉花, 布匹, 소금, 철, 양식 등이 있다. 이러한

수공업과 상업의 발전은 淸朝의 출판업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 특히 상업의 발전은 경제적 교류와 인적 물적 교류를 활발하게 시켜 출판업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中國의 都市는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宋代에 이미 초기자본주의적인 형태가 등장했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로 발전하였다. 이후 明代를 거쳐 清代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변화하였다. 北京은 정치와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北方 상품 교류의 중심지인 대표적인 도시였다. 王朝시대의 중심도시는 어쩔 수 없이 권력의 핵심인 首都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北京의 변화한 지구는 관아와 거래하는 官商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개설한 商店이나 酒樓와 茶肆가 즐비하였다. 이곳은 乾隆·嘉慶 年間에 이르러서는 이미 소비도시와 같은 변모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 측면으로만 따지면 변화가 즐비한 도시는 오히려 江南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풍부한 농업 생산을 기초로 다양한 수공업이 발전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蘇州는 乾隆 年間에 성의 인구가 50만 명이상이 될 정도로 발전하여, 상공업이 가장 발달한 清代 도시로 꼽히기도 한다. 杭州도 번성하여 蘇州와 杭州는 같이 살기좋은 도시로 꼽히기도 했다. 南京도 예외가 아니어서 水陸 교통이 모두 발전하여 絲織業의 중심지로 성장하여 乾隆 年間에는 蘇州와 杭州를 능가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당시 가장 중요했던 물품이었던 鹽業과 漕運의 중심지였던 楊洲는 돈이 넘쳐나는 도시로 유명했다. 또한 華中 지역의 漢口鎮은 운하의 연결통로라는 장점을 살려 食鹽, 木材, 糧食, 綿布, 藥材 등의 집산지로 유명했다.

이러한 많은 도시의 발전으로 도시문화가 번성하였으며, 출판업도 이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또한 袁枚가 태어났던 杭州나 후반기에 정착했던 南京이 모두 번성한 도시였다는 사실은 그와 이러한 경제적 부분이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시가 번성하고 상업이 발전하면 출판업도 따라서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데, 출판은 민간 공연과 더불어 당시 최대의 오락거리였기 때문이다.

袁枚가 살았던 康熙·雍正·乾隆·嘉慶 年間 시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환

경은 매우 우호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편이었다. 국가의 통치기반이 다져지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이끌어 냈으며, 이는 사회의 안정으로 이어졌다.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강남의 도시들인 南京·蘇州·杭州를 비롯한 도시들이 번영을 구가하였다. 이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번성하자 예전에 없던 계층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경제적인 富를 획득한 시민계층이었다. 경제의 발달과 도시의 번성에 맞추어 등장한 이들 시민계층의 확대는 독서인구의 확대로 연결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새로 유입된 독서 인구는 출판업의 활성화로 직결되었고 더 많은 책과 작품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계층의 등장으로 특히 주목을 받았던 것은 가계 읽기 편한 小說이었다. 이에 따라 小說도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출판업의 발전과 小說의 번성이 袁枚의 『子不語』 창작과도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이었던 袁枚 입장에서 전국을 유람하며 돌아다니던 시절인 노년에 이 작품을 창작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추측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 3. 18世紀 文學과 思想 그리고 知識人

文學을 둘러싼 직접적인 배경은 사상적인 흐름과 당시 지식인들의 성향에 대한 부분들이다. 특히 袁枚가 문학에서나 지식인 사회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파악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 1) 文學傾向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나라를 세운 淸朝는 소수의 지배자를 위한 국가이기도 했다. 淸朝의 지배세력인 滿洲族은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유지하기 위해 전

체적으로 보수적이고 퇴행적인 정치와 문화정책을 실시하였다. 강력한 탄압을 밑바탕에 깔고 진행되어진 이러한 지배세력의 문화정책은 복고적 요소가 매우 뚜렷하였던 考證學의 열풍과 직결될 수밖에 없었고, 淸朝의 문인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대규모 학술서적 발간 사업에서도 이러한 考證學은 위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이러한 考證學의 발전과 정부가 주도하는 대규모 학술서적의 발간으로 학술적으로 文字學, 訓詁學, 目錄學, 板本學, 校勘學 등도 매우 발전할 수 있었다.

考證學을 중심으로 한 官學의 열풍은 이 시대의 文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이 시기의 문학은 복고적인 성격이 그 어느 시대보다 뚜렷하였다. 李澤厚는 『美的歷程』에서 이 시대의 문학을 평가하면서 文體에서 內容까지 禁欲主義와 復古主義, 그리고 僞古典主義가 시대를 풍미했다고 평가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復古主義 자체가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지나쳐 새로운 창작이나 독창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실제로 淸代의 문학은 이러한 考證學的 復古主義 성향에 딱히 독창적인 창작이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다. 오로지 전통적인 文學史에서 이미 평가 받는 前代의 각종 文學樣式을 계승하거나 재검토하여 이를 바탕으로 창작하려는 경향이 주를 이루었다.

문학 작품의 창작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문학이론에 있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기 보다는 前人의 서로 다른 주장들을 서로 조화시키거나 융합시키고자 하거나, 이러한 前人의 주장을 더욱 체계화시키고자 했을 뿐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이 시대는 독창적인 창조성이 전혀 없는 정리 작업만 했다고 혹평할 수도 있다. 簡有儀는 『袁枚研究』에서 이 시대를 지나친 復古 때문에 模擬와 답습에만 치우쳤다고 평가하고 있다.<sup>7)</sup> 결국 淸代는 前代에 이룩해 놓은 화려한 학술과 문학적 유산을 잘 계승하여 정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활력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미래를 대비한 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학술적 흐름으로 인해 새롭게 각광 받은 장르로 성장했던 小說은

여전히 주류문학에서 경시되었다. 前代의 모든 작품을 거의 정리하다시피 한 『四庫全書』의 수찬을 총괄했던 紀昀(1724-1805)의 관점을 살펴봄으로써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당대를 대표하는 문인지자 학자였으며 고위관직까지 지낸 紀昀은 『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 小說을 3가로 분류하면서 “당·송 이후에 작자가 많이 번성하였지만, 중간에 황당한 속임으로 참됨을 잃어버렸으며, 요망하고 귀를 어지럽히는 내용도 확실히 적지 않았다. 그러나 권계에 부치거나 건문을 넓히고 고증에 보탬을 주는 것도 또한 그 가운데서 섞여 나왔다. (唐宋以後, 作者彌繁, 中間誣謾失真, 妖妄榮聽者, 固爲不少, 然萬勤戒, 廣見聞, 資考證, 亦錯出其中.)”라고 말하여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하였다. 또한 文言小說만을 수록하고 민간에서 유행하던 장회소설은 하나도 수록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小說에 대한 관점을 나타내기도 했다. 비록 소설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크게 번성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전통학문에서 여전히 경시되었는데, 이는 淸朝의 학술을 이끌었던 考證學의 영향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袁枚가 『子不語』를 지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한 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 2) 思想傾向

앞서서 서술했던 왕조교체기의 지식인의 고민은 특히 사상적인 측면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淸朝는 이러한 지식인의 동향을 미리 파악하여 이러한 지식인을 明代와 같은 방법으로 대하였고, 또한 사상적으로도 儒家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지식인이 도망갈 길을 아예 방지해버렸다. 淸朝는 부정할 수 있다고 해도 孔子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의 고대 중국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淸朝는 이들이 立身揚名을 꿈꾸면서도 華夷思想 등으로 청조에서 관리하는 것에 거부감이 있다는 점도 파악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으로 이들을 끌어들이었다. 그들의 신분은 권력에 위협이 되지 않는 준관원이었으며, 지식인의 입장에서 淸朝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핑계거리가 되기도 했다.

6) 李澤厚, 『美的歷程』, 安徽文藝出版社, 북경, 1980, 263쪽.

7) 簡有儀, 『袁枚研究』, 文史哲出版社, 대만, 民國77년, 106쪽.

清朝는 지식인에게 매우 우호적이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탄압을 가하였다. 文字獄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탄압 앞에서 글을 쓰는 文人들은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외적인 영향 속에 지식인의 사상은 상당한 수난과 곡절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

顧炎武·黃宗羲·王夫之는 明末清初를 대표하는 三大 사상가로써 뽑히는데, 이들은 宋明 理學의 학문적 분위기의 비실용성을 반대하면서 經世를 학문의 궁극적인 목표로 인식하여 경전을 객관적이면서도 엄정한 고증을 거치는 태도로 탐구하여 實事求是와 經世致用을 주창하는 등 實學으로 불리는 實用的 학문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實學적인 분위기는 바로 清初로 연결되어 학문적 분위기는 宋·明理學의 不學과 無用을 비판하면서 古典과 現實이라는 객관적 외부세계의 탐구와 실천을 강조하고 또한 明朝 末期에 흔들렸던 儒家적인 윤리체제인 名敎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결국 그들은 民本主義를 바탕으로 한 現實政治 개혁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이 때문에 實學을 經世學이라고도 한다.

顧炎武·黃宗羲·王夫之 등의 三大 사상가의 뒤를 이어 閻若璩·胡渭·顏元·毛奇齡 등의 학자가 나왔는데, 이들도 實學적인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들은 陽明學 뿐만 아니라 朱子學까지도 통렬히 비판하면서 清代의 학풍을 만들어갔다. 이러한 영향으로 清代의 사상적 흐름은 형이상학적인 宋明 理學의 굴레에서 벗어나 옛 經典을 현실적인 관점에서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에 몰두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된다. 이에 따라 당시의 사상적 근간이었던 儒家는 原始 儒家의 성격으로 변화하는 측면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다.

이들 중에 특히 顏元은 氣 철학을 한층 체계화시켜 實學을 실행하고자 하였다. 그는 또 기존에 있었던 經의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經을 이론이 아닌 실천의 반영이라고 보아, 고대 성인이 제창한 禮樂制度에 대해서도 재해석을 가하였다. 그가 중시한 것은 이러한 經이 당시의 현실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實學이며 또한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학문이라고 주창하였다. 그는 이론적으로 맹목적으로 經이나 고대의 예법을 따르는 지식인을 비판하며 배격하였는데, 이는 걸만 화려한 사상에서 벗어나 현실에 활용 가능한 사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늘날의 실용정신

과 맞물린다고 하겠다. 그가 가장 주목했던 부분은 宋明의 道學 특히 程朱學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의 사상이 중요한 이유는 袁枚가 이러한 사상적 영향을 받아드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기도 하다. 顏元은 전면적으로 朱子를 비판하면서 ‘情欲肯定論’을 주창하였는데 이러한 사상을 그의 제자인 李塉과 함께 顏李學派라고 불렀는데, 袁枚와 아주 친밀하게 교류했던 程廷祚의 사상도 이들과 맥을 같이 했다. 따라서 袁枚도 이러한 顏李學派의 思想的 경향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러한 經世學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탐구를 바탕으로 하기에 자연스럽게 文獻과 골동의 검증에 열중하는 考證學으로 연결되는데 18세기 乾隆·嘉慶 年間に 번성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經世論의 성격상 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본으로 하여 현실비판을 담을 수밖에 없는데, 이는 文字獄으로 대표되는 清朝의 강력한 사상통제와 충돌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사상적 탄압 속에서 經世致用을 주창하며 당시 유행하였던 經世論이나 修養論이 점차 쇠퇴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의 지식인들은 다른 출루를 찾아야 했는데, 이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考證學인 것이다. 考證學은 기본적으로 兩漢의 經學을 표방하고 宋明 理學을 배척하는 기본적인 經世學의 사상적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清朝의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經典의 訓詁나 校勘 등의 방면의 연구에 몰두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 지식인이 찾은 해법이었으며 이로 인해 考證學은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考證學의 등장이 오로지 청조의 의도된 문화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화려한 전통을 살려 이민족의 통치에서 문화적 자존심을 지키려는 노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러한 考證學의 출현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단 공허했던 宋明 理學의 흐름을 배척하면 등장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기도 했다. 宋明 理學의 비판에서 시작하여 독립적인 학문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실정치와 타협을 이루어야 했고, 그 유일한 출루가 바로 實事求是를 추구하는 문헌학적인 실증이나 귀납에 몰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考證學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상적인 족쇄에서만 묶여있지 않고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考證學이 독립된 학문으로 宋代 朱子學으로 대표되는 ‘宋學’에 대항하는 ‘漢學’이란 깃발을 내걸고 역사에 등장하여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는 18세기 중엽에 이르러서였다. 이 시기의 考證學은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가 惠棟의 吳派이고 또 하나는 江永·戴震의 皖派이다. 지역적으로 보면 吳派는 蘇州를 중심으로 江蘇지역에서, 皖派는 安徽와 南部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또한 吳派가 보다 급진파로 漢의 經學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復古와 反宋을 강력히 내세웠으며, 皖派는 상대적으로 朱子을 어느 정도 받아드리면서 禮學이나 曆算 등을 탐구하는 樸學을 중시하였다.

이와 같은 考證學이 주요 학풍으로 등장하자 그 방법론으로 채택된 訓詁學이나 文字學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앞으로 漢代 이래의 전통을 계승하여 그 흐름을 유지시켰고 뒤로는 20세기의 甲骨學이나 金文學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다. 또한 淸朝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각종 서적편찬 사업과 관련되어 訓詁學과 文字學과 더불어 考證學의 보조학문으로 애용되었던 目錄學·板本學·校勘學 등도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考證學의 출현으로 인해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방법론에서 큰 도약을 이룬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考證學은 그 태생적인 원인으로 인해 학문적 한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그 형성과정이 淸朝의 사상적 탄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결국 宋明 理學의 비판에서 經世致用으로 이어졌지만 사상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복고적인 요소가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심적인 이념은 ‘樸學’과 더불어 ‘古學’에 묶여 새로운 것을 내놓기는 한계가 분명하였다. 비록 考證學이 反宋을 내세우며 漢學을 제창하며 朱子學에 도전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漢代 이전의 古籍에만 묶인 儒家 經學이어서 속박되는 것이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淸朝의 사상 탄압과 맞물려 그들의 주장은 현실이나 미래가 삭제된 과거에만 몰두하게 되어, 그 시작지점인 經世致用이나 實學에서 멀어져 또 다른 비실용적 학문으로 자리매

김하게 되었다.

이처럼 淸代 中期에는 考證學의 氣風에 영향을 받은 學術과 文化 전반에 복고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戴震과 같은 진보적인 사상가가 출현하기도 했는데, 이는 淸代의 경제발전과 都市의 번영과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 먼저 戴震은 인간의 情과 欲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朱子의 주장이 老子나 佛敎의 오류에 빠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朱子學의 名敎主義에 반대하는 民本主義를 내세우면서 性情論의 철학에 기초를 두었다. 그는 상대적으로 실생활에 밀착시켜 氣 절학을 人間의 사상으로 충실하게 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진보적인 사상가의 등장은 淸代의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淸朝가 안정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가 번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서양의 시민계층과는 구별되기는 하지만 경제적 발전을 기초로 하는 기본적인 시민성격의 계층이 형성됨으로써 이들은 새로운 학술적·문학적 소비자로 등장하였다. 이로 인해 학문이나 문학적인 활동이 職業化되다시피 하는 성향이 생기면서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난 것이었다. 물론 당시의 사회에서 과거제도를 통한 입신양명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힘들어서 적극적으로 방향을 바꾸기는 어려웠지만 최소한 科擧와 인연이 없는 이들의 활동영역이 생겨났던 것이다. 이로 인해 청조의 눈치만 봐야 했던 지식인 사회와 사상은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袁枚의 노년생활과 창작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3) 知識社會傾向

明末淸初라는 시대적 배경을 논하기 전에 中國古代學術과 文學에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왕조시대의 중국 지식인, 즉 文人은 사회적 正統性을 인정받기 위해 儒家를 기본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儒家가 역대 정권의

왕권강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儒家가 핵심적인 통치이념이자, 윤리이념으로 자리 잡으면서 立身揚名의 처세술은 모든 지식인의 기본적인 소망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立身揚名은 때로 지식인을 매우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왕조교체기에 발생하였다.

忠과 孝를 윤리적으로 강조하는 儒家의 모습과 立身揚名의 儒家가 충돌하는 순간인 것이다. 明末淸初의 지식인들이 바로 이러한 곤란함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淸朝는 이민족인 滿洲族이 통치하고 있어서 華夷사상으로 영향으로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측면이 있었다. 明에 대한 충성과 華夷 사상의 부정적 영향과 立身揚名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다. 君臣 上下관계를 거부하는 투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그렇게 새로운 왕조를 인정하고 君臣 관계를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입신양명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고민 속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에 일정한 거리를 둔 학술에 전념하는 것이었으며, 文學도 그 중에 하나였다. 자신의 재능을 다듬으면서 세상에 등지지 않고, 그렇다고 忠과 華夷思想의 논쟁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왕조교체기의 지식인은 매우 어려운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明末淸初의 지식인도 예외가 아니어서 매우 어려운 선택이 강요되었다. 고대 中國과 같은 정치 및 사회제도에서 科擧를 통한 官僚制는 그 위력이 대단한 것이어서 지식인이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경제활동이나 창작활동이 천박한 행위도 인지되었던 시대적 환경 속에 科擧는 권력과 부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나 마찬가지로 되었다. 淸朝도 이러한 지식인의 사정을 파악하여 科擧를 새로운 인재의 등용문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科擧라는 제한된 틀을 통해 지식인을 장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明 理學을 비판하던 시대적 학풍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 明朝가 실시했던 八股文을 그대로 중요한 시험과목으로 인정하였고, 또한 고위관직에 오르려면 滿洲語 시험을 통과 해야만 했다. 이 두 과목은 공교롭게도 袁枚에게 모두 치명적인 난관으로 작용하는 惡緣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科擧를 통한 등용문이 지식인 세계의 유일한 출구였지만 경제의 발전과 도시의 번영에 맞물려 지식인의 숫자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科擧를 통한

立身揚名은 매우 매혹적이었지만 그 열매가 달콤한 것에 비례하여 모든 지식인을 수용할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科擧 수많은 불행격자를 만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재야 지식인층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이에 경제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독서인의 증가로 이러한 지식인이 활동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가 어느 정도 형성됨에 따라 科擧나 이를 통한 官僚 기구에서 이탈한 文人들은 자연스럽게 在野성을 지향하게 되었다. 文學이나 學問도 새로운 도시계층의 요구에 따르는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창작 작품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科擧제도로 포용하지 못한 많은 지식인들은 경제발전과 도시의 번영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의 지식인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일종의 재야 지식인의 성격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스러운 입장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학술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매우 진보적인 사상이나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여 진보성을 구축하는 토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 4. 小說의 興盛과 『子不語』

18세기 중국도 여전히 主流 문학은 詩를 기본으로 한 전통문학이었지만, 이전과는 달리 통속문학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 시기는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기반으로 詩歌는 물론 小說, 戲曲 등 ‘雅’와 ‘俗’을 구분하지 않고 크게 성행하게 된다. 특히, 인쇄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자본을 통한 출판도 흥성하게 된다. 北京을 비롯하여 南京, 蘇州, 杭州 지역 등은 인쇄업의 중심도시가 된다. 특히 민간 자본이 들어간 출판은 상업성과 결합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적들을 출판하게 되는데 이러한 점이 청대 통속문학이 성행하게 된 중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小說은 작품창작에 두각을 나타내며 상황을 이루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자불어』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1) 『子不語』 창작배경

동아시아의 근대화 과정 중에서 18세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日本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제일 먼저 근대화의 길로 들어섰고, 朝鮮은 眞景文化<sup>8)</sup>를 이룩한 시기였다. 또한 淸은 영토의 확장과 외국과의 교역으로 상업화와 도시화, 사회적 유동성으로 말미암아 고정된 신분지위의 이완을 자극했으며 財力과 紳士의 취득, 그 밖의 엘리트 지위를 성취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점점 더 차별된 사회가 되었다. 특히, 明代의 지적 성취를 토대로 형성된 고도의 교육을 받은 관료 겸 학자들 덕분에 - 대부분 강남 출신의 한족 - 근대 중국의 학문적 토대가 만들어졌다. 상인들은 청 제국과 지방간의 교역망, 지역의 고유한 도시문화를 서로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으며, 출판의 발달로 인해 더욱 상호 연결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청 제국은 만주족에 의한 정권이었기에 '문자옥'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한족 지식인들의 사상을 통제하였다. 18세기에 들어서서도 그 규모 면에서 전대보다 파급효과가 적었지만, '문자옥'이 때때로 발생하였다.

청조는 명조의 정치제도와 사회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특히, 통치계급과 피통치계급간의 충성과 순종, 조상숭배 등의 덕목을 강조하는 儒敎思想은 그들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합치되어 국가를 가정의 연장선상에서 군주와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대응시켰다.

지식인들은 과거를 통하여 관직과 특권을 향유할 수 있었다. 지식인 계층의 관료들은 만주족을 대신하여 백성들을 감독하고 관리하였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지식인들만이 관직을 통하여 엄청난 부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고 관직에서 소외된 지식인의 처지는 비참할 처지였다. 물론 지식인은 사회의 한 계층을 형성했으며 비교적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다하더라도 관료가 되지 못하면 사회에서 존경받지 못하였다.<sup>9)</sup>

원래 역시 그런 지식인 중의 하나였다. 아버지 袁濱은 幕客으로 진국을 유랑하

였기에 가정 살림은 어머니 章氏에 의해 어렵게 이끌어져 나갔는데, 이에 대해서는 「秋夜雜詩」 第9首에 잘 나타나있다.

어렸을 적 역시 집안 가난하여,  
배와 대추 먹고 싶어.  
우리 어머니 비녀와 치마 내다 팔아서  
먹을 것 사와도 내 배 반 밖에 못 채우네.  
문 두드리며 빗 독촉하는 소리 들리면  
울먹이며 일찌감치 숨어버리네.  
어머니가 떠밀려 나가서  
아쉬운 말로 걱정거리 풀려 하네.  
(吾少也貧賤, 所志在梨棗. 阿母鬻釵裙, 市之得半飽.  
敲門聞索負, 啼呼藏匿早. 推出阿母去, 卑詞解煩惱.)<sup>10)</sup>

그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거시험을 통해 고위 관리가 되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어려서부터 공부에 뜻을 두어 經史子集 등 수많은 서적들을 섭렵하였다. 雍正 5년(1727) 12세의 나이로 秀才가 되어 縣學에 들어가고 우수한 성적으로 15세에 '補增生'이 되었다. 18세에 浙江總督인 程元章의 추천으로 萬松書院에 입학하여 학업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 21세의 나이에 廣西 巡撫 金鉞의 추천으로 '박학홍사과'에 응시하지만 안타깝게 낙방하게 된다.

과거에 낙방한 후 그는 北京에 계속 남아 가정교사로 생활을 영위하며 훗날을 도모하였다. 그렇지만 몰락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중압감은 쉽게 버릴 수 없었다. 결국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싫어하던 '팔고문'을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어렸을 때부터 四書文 짓는 것을 싫어하여 비록 현학에 들어가기 위해, 녹봉을 받기 위해, 향시에 추천 받기 위함이지 마음은 끝내 그게 아니었다.

8) '眞景文化'는 조선 왕조 후기 문화가 조선 고유색을 한껏 드러낸 문화로 肅宗에서 正祖에 걸친 약125년간의 문화를 지칭한다.

9) 임계순, 『淸史』, 서울, 신서원, 2000, 222-230쪽 참조

10) 『小倉山房詩集』 10권(王英志, 주편, 『袁枚全集』 1권, 107쪽)

(自少不好作四書文, 雖入學, 雖食餼, 雖受薦於房考, 而心終不以爲然.)<sup>11)</sup>

마침내 그는 건륭 3년(1798), 23세의 나이로 順天의 향시에 합격하여 舉人이 되었다. 12세 때 수재가 되어 11년이 지난 후에 겨우 거인이 되었기에 그의 감회는 「舉京兆」라는 시에서 절절이 나타난다.

기쁨이 가득 차 수심과 오해 사라지고,  
연기 힘든 물건 구한 듯 의심스럽네.  
오늘 이름 경도의 거인에 올랐으니,  
십년 흘린 눈물 계수나무 꽃도 알 것이다.  
고향 정원 저녁 등불 보고 싶네.  
우리 어머니 애타게 쳐다보실...

(信當喜極翻愁誤, 物到難求得尙疑. 一日姓名京兆舉,  
十年涕淚桂花知. 想見故園燈火夕, 老親望眼正穿時.)<sup>12)</sup>

건륭4년(1739) 원매는 大司寇 尹繼善의 도움으로 마침내 ‘庶吉士’가 되어 翰林院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림원에서 그의 재능은 높이 평가되어졌지만, 건륭 7년(1742) 만주어 시험에서 꼴찌를 하게 되어 결국 지방관으로 나가게 된다. 서길사가 되어 한림원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중앙관서의 관리로 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으나 만주어 시험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한족 지식인에게는 치명적 결함이 된 것이다.

건륭 5년(1742) 27세의 나이에 溧水縣 知縣을 시작으로 건륭 13년(1745) 윤계선이 그를 江蘇省 高郵太守로 추천할 때까지 그는 가는 곳마다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윤계선의 추천이 조정대신의 반대로 물거품이 되자 원매는 관직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제 생각을 말한다면, 백성을 위해 이 몸 피곤하다면 기꺼이 받아들여죠. 그러나 지금 늦은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이슬과 서리 맞으면서 하는 일이라고는 대관을 영접하고 환송하는 일이니 대관의 종놈이나 다름없소이다.

(竊自念曰, 苦吾身以爲吾民, 吾心甘焉. 今之味宵昏而犯霜露者, 不過台參耳, 迎送耳, 爲大官作奴耳.)<sup>13)</sup>

그가 원했던 것은 백성을 위해 불철주야 선정을 베푸는 것이지 대관의 종놈처럼 윗사람에게 아부하여 높은 관직에 오르려 했던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결국 원매는 노모의 봉양과 자신의 병을 핑계로 관직을 물러나 小倉山 아래 隨園으로 이주하여 가경 2년(1797) 82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학문과 문예 창작에 전념하였다.

건륭 14년(1749) 수원으로 이주한 후, 그는 독서와 여행을 즐기며 수많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sup>14)</sup> 그의 명성 또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공경대부에서 시정의 상인들까지 모두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해외 琉球에서도 그의 책을 구하려 왔다.

(上自公卿, 下至市井負販, 皆知其名. 海外琉球有來求其書者.)<sup>15)</sup>

『자불어』는 건륭 59년(1794) 그의 나이 79세에 완성되어졌다. 정편 24권과 속편 10권 1025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졌는데 元代 사람의 說部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新齊諧』로 바꾸었다. 그러나 원나라 사람이 지었다는 『자불어』는 존재하지 않기에 『신제해』 보다는 오히려 『자불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序에서 창작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13) 『小倉山房文集』 16권(王英志 주편, 『袁枚全集』 2권, 268쪽)

14) 그의 저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현재 그의 작품으로 밝혀진 것은 『小倉山房詩集』, 『小倉山房文集』, 『小倉山房外集』, 『小倉山房尺牘』, 『牘外餘言』, 『子不語』, 『隨園詩話』, 『隨園隨筆』, 『隨園食單』, 『袁太史稿』 등이 있다.

15) 『清史稿·文苑二·袁枚』

11) 『小倉山房文集』 35권(王英志 주편, 『袁枚全集』 2권, 643쪽)

12) 『小倉山房詩集』 1권(王英志 주편, 『袁枚全集』 1권, 16쪽)

마음을 즐겁게 하고 귀를 놀라게 하는 일을 두루 채집하여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들은 것을 기록하여 여기에 남겨 두는 것이지 [그것에] 미혹된 것은 아니다. (廣採游心駭耳之事, 妄言妄聽, 記而存之, 非有所惑也.) 『子不語序』

서의 문맥대로 해석한다면, 『자불어』는 작자가 심심풀이로 세상의 모든 기이한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모아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수원이 재미 삼아 엮다 隨園戲編’라는 自署를 사용하여 자신이 소일거리로 『자불어』를 지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작자가 ‘재미 삼아 엮다(戲編)’라고 했지만, 그 말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소재와 내용들이 작품에 담겨져 있다. 오히려, 孔子가 논하지 않은 ‘공자는 기이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난잡한 이야기, 귀신 이야기’의 형식을 빌려 당시 사회에 퍼져 있는 모순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그는 『자불어』가 실제 일어난 기이한 일들의 기록이 아니라 허구를 통하여 창작되어진 것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자불어』의 내용은 실재 있었던 일만은 아니다. (子不語一書, 皆莫須有之事.)<sup>16)</sup>

결국 『자불어』는 志怪 형식을 차용하여 그 당시 사회 모순에 대해 비판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원매는 빈한한 가정의 출신으로 오직 실력으로 수재, 거인, 진사가 되었지만, 결국 중앙 부서에 남지 못하고 지방관이 되어 溧水, 流陽, 江寧 현령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그는 관직생활을 하면서 지방의 수장으로 고통 받는 백성들의 현실, 관리들의 부패, 封建禮敎의 모순, 그릇된 미신, 냉정한 인간 세상 등등 모든 것을 직접 겪었다. 그런 까닭에 비록 자기가 되는대로 재미 삼아 엮은 것이라 하지만 오히려, 젊은 시절부터 틈틈이 일관된 내용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그의 나이 79세에 완성한 『자불어』는 오히려 지식인의 고뇌가 담긴 필생의 勞作이라고 할 수 있다.

『자불어』의 소재는 그가 대략 청년시절부터 자신이 직접 겪었거나, 친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 각지를 유람하면서 들었던 이야기, 官方의 공문에 실린 이야기, 문헌자료에서 취한 이야기 등 세상사에 있는 이야기들을 두루 모아 지은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사상에 부합하는 소재만을 수용하였다.

그가 재미 삼아 소일거리로 책을 엮었다고 하였지만, 그 속에는 청대 지식인, 특히, 지배계급의 주류가 될 수 없었던 한족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뇌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비판과 냉소로 표출되어졌다.

18세기 중국의 사회와 문화는 經世學의 쇠퇴와 考證學의 흥기가 맞물린 시대였다. 청조는 문자옥을 통해 지식인들에게 강력한 사상 통제를 하였기에 經世致用的 학문인 경제학은 점차 쇠퇴하게 되었으며, 결국, 그들은 경전의 훈고와 교감 방면을 연구하는 고증학에 몰두하게 되었다. 만주족의 문화 정책과 한족의 전통 문화의 보존이라는 두 가지가 서로 어우러진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매가 활동한 시기는 고증학이 정점에 달한 때로 보수적 경향에서 진보적 경향이 분리되어 나오는 시기였다. 결국 八股文의 사용을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나누는 도구로 인식하여 팔고문체를 수용하거나 또는 무시하는 분리 현상이 일어난 시기였다. 수많은 지식인들이 과거의 합격과 관직의 취득을 포기하고, 국가 권력에서 벗어나 초야에서 진정한 학문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文行出處’를 추구하는 지식인이 ‘국가 권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고뇌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지식인들의 고뇌는 사회문화에 대한 비판적 고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원매는 『자불어』의 저작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기록하려 했던 것이다.

## 2) 小説의 興盛과 袁枚

清朝는 복고주의적 성향으로 비록 문학적 성과가 있었지만 前代를 모방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있었으니

16) 袁枚, 『答楊笠湖』, 『小倉山房尺牘』 7권(王英志 주편, 『袁枚全集』, 5권, 134쪽)

바로 明代의 전통을 계승하고 승화시키며 清代중기부터 흥성했던 소설의 창작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문학사에서 明清시대를 가리켜 소설 창작의 황금시대라고 부르는데 명대와 청대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文言소설에서도 잘 나타난다. 明代 소설의 주요한 성과는 文言소설의 성취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白話小說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청대는 백화와 문언이 함께 양쪽 날개를 이루며 전면적인 발전을 이룩했던 시대이다. 이러한 清代 문언소설은 3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順治와 康熙 年間の 초기, 乾隆, 嘉慶 年間の 중기, 아편전쟁 후의 晚淸시기를 후기라고 구분할 수 있다.

清代 고대소설의 특징은 주제, 편폭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소재와 주제는 전대에 비해 다양해졌으며 현실적인 소재를 다룬 작품들이 대폭 늘어났다. 당시 사회의 어두운 상황과 당시 현실의 제반 문제점을 다룬 작품이 대폭 늘어났다. 또한 편폭도 증가하여 장편 소설의 황금기로 평가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紅樓夢』이나 『儒林外史』 같은 작품들은 편폭이 모두 각각 120回本에 이를 정도였다. 이러한 편폭은 문언소설에서 힘든 일로 백화소설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청대 소설의 흥성을 이끈 것은 문언소설이 아니라, 백화소설이었다. 백화소설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당시의 언어를 사용했기에 대중의 사랑을 받기 쉬웠고, 또한 현장감 있는 묘사와 소재와 긴 편폭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흥성하게 된 원인은 내적 원인과 외적 원인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내적 원인은 작가와 소설을 둘러싼 원인이고, 외적 원인은 소설을 둘러싼 시대적 변화를 말한다. 먼저 외적 원인은 경제발전과 도시의 번성으로 인한 독자층의 확대가 가장 결정적이다. 경제발전과 도시의 번성으로 인해 상인층과 도시시민계층이 빠르게 형성되었는데, 이들은 나름대로 문화적 향수가 필요했기 때문에 민간 예술 공연과 소설과 같은 오락거리가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이들은 이미 문학적으로 소설을 감상할 만한 소양과 여유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독자층의 확대로 인해 소설을 비롯한 서적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었는데, 이를 인쇄·제지술의 발달이 뒷받침했다. 인쇄술의 발달로 출판이 한결 쉬워졌고, 그 보급도 빠르게 확장되어 일반 서적과 함께 소설책이 널리 보급될 수 있다.

내적 원인으로는 만주족이 이끌었던 淸朝의 독특한 관료체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科擧만이 유일한 출세수단이었던 고대사회에서 청조는 중앙권력이 만주족 위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반 지식인의 관직을 얻기 위한 방법은 험난했다. 완고한 복고주의와 권위주의적 학술풍조에 八股文의 장벽과 만주어의 난관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식인들의 불만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원인은 소설의 창작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여기에는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雅에 속하는 문장의 창작을 둘러싼 조건은 매우 까다로우 청조가 비록 대규모 학술편찬 사업을 벌이기는 했지만, 文字獄으로 대표되는 사상탄압이 수시로 혹독하게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이러한 감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小說과 같은 俗文學이 문인들에 의해 더욱 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소설이 흥행하자 소설에 대한 인식도 제고되었는데, 金聖嘆, 李漁, 紀昀 등의 문인들이 소설을 창작하면서 나름대로의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조에서도 주류문인과 재야문인의 관점은 확실히 차이가 나는데, 시대적 흐름과 상관없이 중앙 정권에서 높은 관직을 지냈던 紀昀은 매우 복고주의적인 관점을 유지했다. 시대적 흐름으로 보자면 특히 김성탄은 과격적인 자신의 주장을 내놓았는데, 그는 『水滸傳』과 『西廂記』를 『離騷』, 『莊子』, 『史記』, 『杜詩』와 함께 ‘六才子書’라고 하여 소설을 중국 전통의 정통문학과 동렬에 놓을 정도였다.

苗壯은 『筆記小說史』에서 청대에 출현한 이런 文言소설이 이런 특징을 3가지로 꼽고 있는데, 첫째, 명대의 전통을 계승하여 내용과 형식이 모두 통속화하였다. 내용에서는 민간의 전설과 민중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민간 구어를 대폭 작품에 끌어드려 새로운 활력을 이끌어냈다. 둘째, 주관적 색채가 강화되었다. 청대의 문언소설은 이미 전대의 기이한 소문을 전하는 것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작가의 창작’이 더해져 비소설적 요소를 제외하고는 철학적 성격을 담고 있다. 셋째 형식적으로는 매우 다양해졌다. 淸朝의 문언소설은 前代의 모든 문언소설의 형식이 모두 다시 등장하였다. 또한 통속화되는 동시에 산문화하는 경향도 등장했다.<sup>17)</sup>

문언소설의 이러한 전체적인 특징은 袁枚에게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시

17) 苗壯, 『筆記小說史』 浙江古籍出版社, 浙江, 1998, 351쪽.

대적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袁枚는 비록 재야문인으로 詩와 散文으로 대표되는 傳統문학에서 명성이 하늘에 이를 정도로 대단한 문인이었지만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었고 그 결과가 그의 소설 『子不語』로 나타난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창작으로 그는 무언가를 꼭 나타내고자 했을 것이지만, 그것은 동시대를 살아간 거의 모든 지식인이 느꼈던 그러한 시대적 고민이었던 것이다.

### 3) 清代小說과 『子不語』

이 논문에서 동시대는 기본적으로 袁枚의 一生과 『子不語』의 창작연대를 기준으로 한 전후시대로 잡지만, 매우 엄격한 구분보다는 清代 中期를 포괄하는 전체적인 소설작품을 기본으로 삼는다.

청대 소설의 분류 袁枚와 『子不語』를 전후한 소설의 흐름은 매우 활발한 편인데, 먼저 백화소설의 흐름과 성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백화소설은 그 편의 길이를 기준으로 단편과 장편으로 나눌 수 있으나 소설의 대부분의 성과는 백화장편소설에 의해 이루어진다. 백화단편소설은 대부분이 전형성이 돋보이는 才子佳人類로 李漁의 『無聲戲』, 『十二樓』가 대표적이다. 소설의 줄거리는 민간에서 회자되는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격적인 대중의 독서물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초기의 백화단편 소설과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청대는 문언소설에도 번성하였지만, 소설의 꽃은 백화장편소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백화장편소설은 단지 그 편복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특징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과를 내어 현대적 개념의 novel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도 전혀 뒤쳐질 것이 없었다. 특히 『紅樓夢』의 성과가 눈에 띈다. 이러한 백화장편소설을 여러 가지 기본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논문에서는 그 소설의 성격에 따라 諷刺小說, 人情小說, 才學小說, 花柳小說과 義俠公案小說 등으로 나누어 평가하고자 한다.

諷刺小說은 어떠한 인물이나 사회의 결점, 모순, 불합리 따위를 풍자하는 소설로

당시 사회에 드러난 여러 가지 폐해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청대에는 비판적 의식을 지닌 지식인 작가들은 개성 있는 문체와 날카로운 시각으로 당대 사회의 절실한 문제를 풍자하여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 대표작은 『儒林外史』가 있는데 이 작품은 큰 성과를 거두며 청말 견책소설에 큰 영향을 준다.

『儒林外史』의 작가는 吳敬梓로 字는 敏軒이다. 그는 이 소설을 통해 과거제도의 폐단과 부패를 폭로하는데 중심을 두면서 봉건 사대부들의 추악한 면모와 당시 사람들의 악습 등을 동시에 풍자하고 있다. 諷刺는 중국 고대예술의 하나의 전통으로 『儒林外史』은 이를 계승하여 중국문학사상 가장 뛰어난 장편풍자소설로 평가받기도 한다. 묘사에 있어서는 생동감 넘치는 인물묘사와 통속적인 북방 구어를 사용하여 현장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구성은 매우 독특하여 소설 전체가 단편 일화들로 엮여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중심인물이나 통일된 줄거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儒林外史』에는 특히 과거에 관련된 부패와 문제점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소설에 따르면 당시의 과거에는 대리시험, 컨닝, 모범 답안집, 뇌물 등 온갖 불법이 만행했을 정도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거제도에 대한 비판은 袁枚의 『子不語』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존재하는데, 이는 당시 지식인이 공통적으로 느꼈을 청조의 과거제도와 관료제도 및 이를 둘러싼 문제점이 매우 심각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人情小說은 사람에 중심을 둔 소설로, 사회적 문제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실질적인 인간관계를 다룬 소설이다. 따라서 등장인물의 미묘한 심리변화나 주변 생활에 밀접한 내용에 대한 표현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인정소설은 기존의 역사위주의 중국소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으로 꼽히는데, 작품으로는 明代의 걸작 『金瓶梅』를 이어 청대에는 『紅樓夢』이라는 뛰어난 작품이 시대를 주도한다.

『紅樓夢』의 작가는 일반적으로 曹雪芹으로 알려져 있지만, 앞 80회는 曹霑(號, 雪芹)의 작품이고, 뒤 40회는 高鶚의 續作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러한 『紅樓夢』에 대한 문학적 성취와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는데, 이 소설의 내용은 賈씨 가문의 몰락이라는 거대 줄기 속에 寶玉이라는 주인공의 애정을 주로 다루고 있다. 하

나의 스토리이지만 두 가지 줄기라고 하겠다.

『紅樓夢』은 주인공을 중심으로 400명이 넘는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뚜렷한 개성을 뽐내며 펼쳐지는 거대한 인생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그리고 이 소설은 그 전에 나왔던 前代의 소설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전에 없었던 참신하고도 대담한 중국 人情小說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는다. 이처럼 『紅樓夢』은 개성 있는 인물묘사를 통하여 불후의 인물전형을 창조했고, 일상생활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세밀한 심리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정신세계에 대한 표현에도 탁월하였다.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유기적으로 안배하여 전체적인 구성력이 탄탄하다. 등장인물에 걸맞는 정확하고 세련되고 생동감 넘치는 언어를 구사하여 중국고전소설사상 언어예술의 최고 경지에 오른다.

『紅樓夢』이 크게 유행하자 『紅樓夢補』, 『後紅樓夢』, 『俗紅樓夢』, 『紅樓幻夢』, 『紅樓重夢』 등의 많은 續作이 나왔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1754년 필사본이 나온 이래 100여 종의 간본과 30여 종의 속작이 나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에 달하는 전문가들이 『紅樓夢』 연구에 참여하여, ‘紅學(redology)’이라는 독립적인 학문 분야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 또한 이 소설은 사실주의 문학의 높은 성과로서 그 후의 문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현대에 이르러서도 이 『紅樓夢』을 제재로 해서 쓴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영화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才學小說은 작가가 소설을 통해 자기의 학식과 글재주를 과시하는 성격의 소설이다. 예를 들어 李汝珍의 『鏡花緣』과 같은 작품으로 서구에서 들어온 신문물과 신학문에 대한 당시 사대부들의 호기심을 반영하고 있다. 전통적이며 보수적인 교육에 익숙했던 당시의 지식인들의 세상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 하겠다. 그들은 새로운 문물을 중국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요소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호사가적인 관심의 대상으로만 그려져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또한 지나치게 현학적인 묘사로 다소 번잡한 느낌을 주는 단점도 가진다.

『鏡花緣』의 작자는 李汝珍(字, 松石)이다. 唐나라 則天武后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조금은 황당한 이야기로 『山海經』에 나오는 君子國, 小人國, 人魚國, 女人國,

無腸國 등 희한한 나라들이 등장하여 『걸리버 여행기』와 비슷한 환상적이며 童話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당나라의 사회병폐를 신랄하게 비판한 諷刺소설로도 평가 받기도 하고, 남녀평등을 주장한 소설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 『鏡花緣』은 이처럼 풍부한 상상력과 해학 및 박학을 이용하여 불평등한 부녀문제와 사회의 폐단을 비판하여 자못 독특한 견해와 이상이 담겨 있으나 지나치게 현학적이라는 단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花柳小說은 그 글자의 뜻 그대로 기생이나 유흥가를 전문적으로 다룬 소설이다. 따라서 소설의 성격상 매우 통속적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는 당시의 지식인들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현실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보편적인 방식이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은 비겁하고 나약한 지식인이었음에 분명하지만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사회를 풍자했던 것이다. 花柳小說로는 魏秀仁의 『花月痕』, 俞達의 『靑樓夢』, 韓邦慶의 『海上花列傳』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陳森의 『品花寶鑑』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그 중에 『品花寶鑑』이 유명한데, 작자는 陳森으로 明代 북경의 배우와 기녀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였다. 화류계의 실제인물을 모델로 한 장편소설로, 동성연애가 작품의 줄거리가 되는 독특한 작품이다. 소설의 성격으로 인해 자세히 묘사된 외설적인 표현이 자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義俠, 公案小說은 초월적인 영웅과 명석한 재판관의 활약상 그린 소설로 독자들에게 통쾌함을 던져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일반대중의 사랑을 크게 받았다. 이러한 義俠, 公案小說의 유행은 시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서민들의 집단적인 위기감과 그로부터 기인한 현실도피의 심리상태가 반영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소설은 대중적인 인기를 바탕으로 淸末까지 계속 창작되며, 후대 견책소설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義俠, 公案小說로는 石玉崑의 『三俠五義』, 작자 미상의 『施公案寄聞』, 貪夢道人的 『彭公案』 등이 있지만 대표작으로는 『兒女英雄傳』이 꼽힌다.

『兒女英雄傳』의 작자는 文康(字는, 鐵仙)으로 여자 협객 十三妹가 부친의 원수를 갚고 은인 安驪와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이다. 이 책은 주인공 金鳳의 ‘金’

과 玉鳳의 ‘玉’의 인연이라 하여 『金玉緣』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체적으로는 才子佳人의 소설에 무용담을 삽입한 형태로서 무협지와 비슷한 느낌을 주며, 순수한 북경어로 썼기 때문에 方言연구에 좋은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등장한 청대의 백화 장편소설은 중국 소설 양식의 가장 높은 성취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그 중에도 풍자소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儒林外史』와 중국 고전문학의 한 금자탑으로 불리는 『紅樓夢』이 대중적인 인기도나 예술적 성취로 보아도 가장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文言小説은 단편을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魏晉南北朝시대의 志怪소설과 唐代의 傳奇소설 계통으로 나뉘어 평가되기도 한다. 이를 가리켜 筆記 혹은 筆記小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文言小説은 魏晉南北朝시대의 志怪와 이를 발전시킨 唐代의 傳奇를 이어받은 양식이다. 작가는 대부분 지식인들로 민간의 민담과 전설을 기록하거나 당대의 기이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 대부분이다. 편폭이 대체로 짧고 영성하며 소설적 구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淸朝의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 당시의 지식인들이 詩와 散文과 같은 주류 양식으로는 내어놓기 어려운 통속적이고 과격적인 생각들을 가벼운 형태의 글의 종류에 담아낸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작품은 袁枚의 『子不語』를 비롯하여, 沈起鳳의 『諧鐸』, 浩歌子の 『螢窓異草』 등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閱微草堂筆記』, 『聊齋志異』가 대표작으로 꼽힌다.

『聊齋志異』의 작가는 蒲松齡(字 留仙)으로 총 12권 491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당대 傳奇의 수법을 차용하여 탄탄한 구성력, 풍부한 상상력, 정련된 언어, 치밀한 묘사성, 뛰어난 창작성 등으로 중국 문언단편소설의 최고봉으로 꼽히기도 한다. 내용은 대부분 花妖, 狐魅, 귀신 등을 상상의 영역을 빌어 당시의 사회현실을 반영하였다. 작가가 직접 보거나 들었던 당시의 奇聞逸事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어 淸代 민중들의 생활을 이해하는 중요한 野史로 평가받기도 한다.

『閱微草堂筆記』의 작가는 당대의 학자이자 관료였던 紀昀(字는, 曉嵐)으로 총 24권, 1,100여 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용은 대부분 귀신, 풍속, 詩文, 典故, 서화 등에 관한 괴이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룬다. 당대 전기의 화려함을 반대하고 육조

지괴의 질박함을 추구하여 문장이 담백하고 청신하다. 紀昀은 문학적 지위나 높은 관직까지 오른 때문인지 『聊齋志異』가 俗되다고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예술성은 『聊齋志異』에 뒤떨어진다고 평가받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南袁北紀’라 하여 紀昀과 정치적으로나 문학적 취향에서 전혀 반대였던 袁枚도 紀昀과 마찬가지로 『聊齋志異』 비판했다는 점이다. 그는 『聊齋志異』의 지나치게 번잡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는 唐 傳奇의 형식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sup>18)</sup> 袁枚가 『聊齋志異』를 칭찬하면서도 비판하고 있는데, 이처럼 紀昀과 똑같은 목소리를 낸 이유는 그들이 아무리 俗文學인 小説을 지었다고 해도, 역시 기본적인 출발점은 전통문학을 바탕으로 한 雅임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袁枚가 小説을 창작한 이유가 결코 俗에 대한 전폭적인 수용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행한 소설은 淸末에 이르는 동안 끊임없이 발전하여, 譴責小説, 政治小説, 翻譯小説, 상업소설, 흑막소설, 무협소설, 탐정소설 등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의 작품이 사랑받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소설은 확실한 문학 장르로 굳어지게 된다.

『子不語』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나온 작품으로 소설의 열풍은 매우 일반적인 시대였다. 특히 淸朝의 혹독한 정치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과거제도, 관직생활, 사회적 모순 등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풀어낼 공간이 필요했는데, 詩나 散文 같은 주류문학은 너무 雅하고 형식적인 측면이 강해 힘들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청조에서 느꼈던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현실의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는 방법으로 小説이란 俗文學을 선택한 것이고, 또 자신에게 익숙한 문언 소설을 선택한 것이다.

18) 馮鎮巒, 『讀聊齋雜說』: ‘柳泉『志異』一書, 風行天下, 萬口傳誦, 而遠簡齋議其繁衍.’

#### 4. 結語

明末淸初의 文人들은 역사의 수레바퀴 밑에 깔려 왕조의 교체시기를 겪어야만 했다. 그들은 새로운 왕조 그것도 이민족인 淸朝라는 실세와 이미 망해버려 이미 적대세력으로 내몰린 明朝와의 명분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고, 또 마음을 정리해도 科擧라는 등용문을 통과하여야 했고, 또한 고위관직이라도 꿈꾸려면 滿洲語를 공부하여 滿洲族 친하인 중앙권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이러한 칩첩산중의 난관 속에서 또한 淸朝의 강력한 중앙권력의 회유와 탄압 속에서 문인의 학문적 재능과 열정은 기초적인 요소일 뿐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결론적으로 明末淸初의 文人에게 주어진 조건은 매우 잔혹한 것이어서 지식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존을 강구해야만 했다. 文人들은 科擧를 통하여 淸朝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비교적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연구를 하던지, 아니면 불안정한 생활 속에서 재야의 지식인으로 남아 자신의 마음에 따라 자유스러운 연구를 하는 것이었다. 文人에 있어 이 시기는 희망보다는 어깨에 짊어진 부담이 더 컸던 시기였던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많은 문인들이 ‘俗’된 문학인 소설 창작으로 눈을 돌렸으며, 원매 또한 말년에 『자불어』를 지어 ‘俗’의 수용을 통해 억압된 자신의 사회관을 표출 하였던 것이다.

#### < 參考文獻 >

- 袁 枚 『新齊諧』, 隨園藏版本, 淸 戊申年(1788).  
 \_\_\_\_\_, 『新齊諧』, 上海圖書集成印書局, 淸 光緒18年(1892).  
 \_\_\_\_\_, 『子不語全集』, 河北人民出版社, 1987.  
 古 曄 『子不語』, 北京:中國國際廣播出版, 1992.  
 王英志 主編 『袁枚全集』, 杭州:江蘇古籍出版社, 1993.  
 宋致新 『袁枚的思想與人生』, 南京出版社, 1998.  
 王英志 『袁枚傳』, 東方出版社, 1999.  
 丁 昶 『袁枚』, 南京:江蘇古籍出版社, 1996.  
 侯忠義 『中國文言小說史稿』 上下冊, 北京大學出版社, 1994.  
 中國小說研究會 編 『중국소설사의 이해』, 학교방, 1994.  
 侯忠義 主編 『中國歷代小說辭典』, 雲南人民出版社, 1993.  
 唐富齡 『文言小說高峰的回歸』, 武漢大學出版社, 1990.  
 魯 迅 『中國小說史略』, 魯迅全集9卷,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87.  
 吳志達 『中國文言小說史』, 山東:齊魯書社, 1994.  
 陳文新 『中國傳奇小說史話』, 台北:正中書局, 1995.  
 \_\_\_\_\_, 『中國筆記小說史』, 新店:志一出版社, 1995.  
 苗 壯 『筆記小說史』, 浙江:浙江古籍出版社, 1998.  
 吳禮權 『中國筆記小說史』, 北京:商務印書館, 1997.  
 魯 迅 著, 趙冠侯 譯 『中國小說史略』, 서울:살림, 1998.  
 \_\_\_\_\_, \_\_\_\_\_, 『중국소설사』, 서울:소명출판, 2004.  
 수잔 나킨 지음, 정철웅 옮김, 『18세기 중국사회』, 신서원, 1998.  
 김성우,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역사비평사, 2001.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서울:이산, 2007.  
 馬 華 등 著, 千賢耕 譯 『中國隱士文化』, 서울:동문선, 1997.  
 임계순, 『淸史』, 서울:신서원, 2000.  
 서울대학교동양사학연구소 編 『講座中國史 4』 (서울:지식산업사, 1989.)  
 신병철, 「『子不語』에 나타난 청대 지식인의 고뇌」, 『한국중국소설논총』 17집, 한국중국소설학회편, 2003. 3.

## &lt;中文提要&gt;

袁枚写作的文言小说集《子不语》出现在清朝时代，就暴露了18世纪当时中国社会现实和矛盾。它的创作是一个社会产物，受到了许多当时社会的各种影响。本论文写出有关《子不语》的几个重要的创作背景。

第一，谈到历史和文化的背景。文学作品是社会的产物，不的不受到当时历史变迁和文化发展，因此我们理解当时历史和文化的背景，可以找到对《子不语》的历史和文化的影响。

第二，谈到当时的思想和知识分子。文言小说的主要创造群是当时知识分子，因此我们要理解文言小说，先要理解当时知识分子的情况，而且要理解他们，先要知道他们的思想背景。

本论文探讨环绕《子不语》的这些各种背景，经过这些探讨我们可以理解《子不语》的全面的情况。

關鍵詞：袁枚、子不語、18世紀、知識人、被支配階層、現實批判、文言小說

원고접수일	2008. 1. 15
심사일정	2008. 2. 11
1차수정	2008. 2. 22
게재확정	2008. 3. 7
출간	2008. 3. 30